■ 기아차 '올 뉴 K3' 시승기

최근 '올 뉴 K3' 시승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담양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을 지나 담양호를 돌아 오는 왕복 76km 구간 약 100분 동안 진행됐다.

'리틀 스팅어' 중형급 파워까지 '굿'

MPI 엔진에 무단변속기…연비·가속 탁월
넓어진 실내공간…고속주행 차체 안흔들려

지난달 공식 출시된 '올 뉴 K3'는 ▲15.2km/L 경차급 연비(15인치 기준) ▲볼륨감 있고 다이나믹한 외관 ▲넓고 편안한 실내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사양 적용 등을 통해 차급을 넘어서는 제품 경쟁력을 갖춘 '업스케일 다이나믹 세단'을 표방한다.

최근 '올 뉴 K3' 시승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담양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을 지나 담양호를 돌아 오는 왕복 76km 구간 약 10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시승한 차량은 '올 뉴 K3' 노블레스 트림 풀옵션으로 기아차의 첨단 주행 보조 기술인 '드라이브 와이즈'가 적용됐고, 기아차 최초로 '스마트스트림 1.6 가솔린 엔진'과 '스마트스트림 IVT(Intelligent Variable Transmission)' 조합이 적용된 모델이다.

먼저 '올 뉴 K3'의 디자인을 살펴보니, 전체적으로 볼륨감과 다이나믹함을 강조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지난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괜히 '리틀 스팅어'라는 별명이 붙여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전면부에서는 '올 뉴 K3'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엑스 크로스(X-Cross) LED DRL이 적용된 Full LED 헤드램프가 가장 눈에 먼저 들어왔다. 또 후면부는 화살 모양을 형상화한 애로우 라인(Arrow-Line) LED 리어콤비램프와 이를 연결한 트렁크 가니쉬, 전면부와 동일한 수평형 방향지시등을 적용해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통일성을 더했다.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 차량에 탑승해 실내 이곳 저곳을 살펴보았다.

우선 1·2열 헤드룸과 2열 숄더룸이 확장돼 공간이 더욱 여유로워진 것을 체감할 수 있었고, 수평으로 뻗은 크롬 가니쉬를 적용한 센터페시아가 시각적으로도 와이드한 느낌을 주었다.

실내 공간 뿐 아니라 적재공간도 넉넉했다. '올 뉴 K3'는 리어오버행(뒷바퀴 중심축에서 뒷범퍼 끝까지의 거리)이 기존 모델에 비해 60mm 길어져 트렁크 용량이 502L(VDA 측정방식 기준)로 동급 최대 수준이다.

제원 수치를 살펴보니 '올 뉴 K3'는 전장 4,640mm, 전폭 1,800mm, 전고 1,440mm, 축거 2,700mm로 전 모델 대비 확실히 덩치가 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시동을 걸고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했다.

'올 뉴 K3'에 새롭게 탑재된 무단변속기가 주행감성 측면에서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막상 페달을 밟으니 부드럽게 쭉쭉 나갔다. 엔진 RPM 상승과 차량 가속도 상승을 최대한 일치시켜서 운전자가 가속감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 느껴졌다.

시승 전 행사에서 다양한 변속모드를 구현한 변속 로직을 적용해 느린 응답성, 답답한 운전성 등 기존 CVT 차량에서 느껴지던 단점을 개선했다는 기아차 관계자의 설명에 수긍이 갔다.

'올 뉴 K3'는 다이나믹하게 달리면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했다.

단단한 바디 덕분인지 흔들림 없이 주행이 가능했고, 도심의 좁은 도로는 물론 빠른 차선 변경 시 민첩한 스티어링이 돋보였다.

고속도로 진입 후 고속 주행시에도 여전히 민첩한 핸들링과 안정적인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주행모드를 SPORT에 놓고 가속페달을 밟자 뻗어 나가는 파워가 대단했다.

'올 뉴 K3'의 SPORT 모드는 다른 주행모드와 달리 변속기를 수동모드로 조작하면 작동이 되는데,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갈 필요가 있을 때 운전의 재미를 더해주었다.

시원하게 뻗은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에는 '올 뉴 K3'에 탑재된 주행안전기술(ADAS)을 체험해보았다.

주행 중 후측방 사각지대의 차량 또는 고속으로 접근하는 차량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후측방 충돌 경고 시스템은 각 진입로에서 차선을 변경할 때 빛을 발했다. 생애 첫 차로 '올 뉴 K3'를 선택하거나 아직 운전에 미숙한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기술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 외에도 '올 뉴 K3'에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보 ▲하이빔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이 포함된 '드라이브 와이즈'가 적용돼 보다 안전한 주행이 가능했다.

첨단 안전 사양이 대거 탑재돼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중간중간 주행 성능과 다양한 기능을 테스트했고, 비가온 날씨 속에서도 시승차량 모두가 평균 연비 15.2km/L이상 상회하는 연비를 기록하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올 뉴 K3' 시승을 마치고 나니 경제성, 스타일, 안전성을 고루 갖춘 균형 잡힌 차량임을 느낄 수 있었다. '올 뉴 K3'가 국내 준중형 세단 시장에 몰고 올 새 바람이 기대된다.

/서미애 기자

광주상의 회장 선출 '의원 90명 선출'

오는 20일 임시의원총회서 회장 선임

제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선출할 권한을 행사하게 될 의원과 특별의원이 선출됐다.

13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의원·특별의원 선거를 통해 3년간 지역 상공업계를 이끌어 갈 의원 80명과 특별의원 10명을 각각 선출했다.

앞서 광주상의는 제23대 의원 선출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5일간 후보자 등록 접수를 실시했고, 마감 결과 80명을 뽑는 의원은 99명이 접수해 1.2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0명을 뽑는 특별의원은 18명이 입후보해 1.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의원 선거는 전체 투표권수 2,885표 중 2,712표가 행사돼 9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출된 90명의 의원과 특별의원은 앞으로 3년간 광주상공회의소 운영과 관련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역 기업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현안 문제 해결은 물론, 상의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도 업계를 대표해 참여하게 된다. 광주상의는 제23대 의원 선출이 선출됨에 따라 오는 20일 1차 임시의원 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과 부회장 8명, 상임의원 20명, 감사 2명 등의 임원진을 선출한다. 회장 후보자 등록기간이 오늘부터 16일까지다.

한편 이번에 의원 및 특별의원으로 당선된 법인 및 단체는 오는 16일까지 앞으로 의원으로 활동 할 대표자를 선임하여 광주상공회의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자 선임 및 임원 선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원본부(062-350-5830/32)로 하면 된다.

/유형동 기자

롯데백화점 광주점 "화이트데이 향수 선물 어때요?" 롯데백화점 광주점2층 향수 코너에서는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남성고객이 여성에게 선물할 향수를 시향하고 있다. 14일까지 향수 코너에서는 상품 구매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생화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세금상담 받으세요"

광주·전남·전북 세무서
셋째주 화요일 오후 1시~4시
세금상담코너 운영

광주, 전남, 전북지역 각 세무서가 매월 한 차례 정기적으로 세금상담 코너를 운영한다.

13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광주국세청 산하 광주, 전남, 전북 14개 세무서는 이달부터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민원봉사실에서 세금상담 코너를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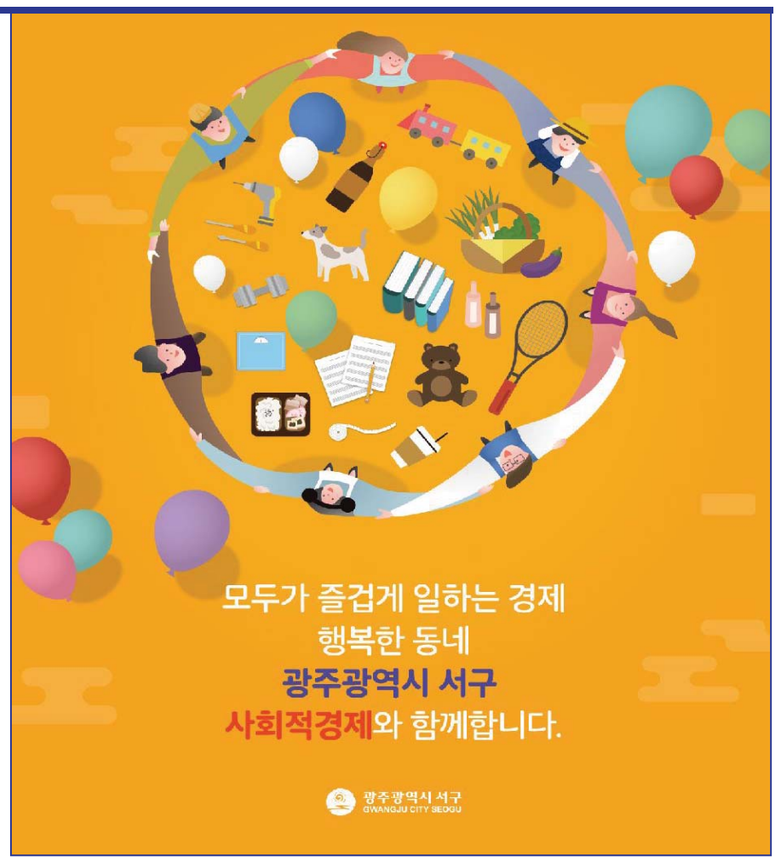
세무사 80명, 공인회계사 13명 등 전문가 총 93명이 상담 도우미로 나서 세금 관련 상담을 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듣는다. 또한 창업자·폐업자 상담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 등을 안내한다. 상담은 신규사업자, 중소상공인 및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서미애 기자

전남정보진흥원, '기업협업 융복합콘텐츠 지원사업' 회의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이 최근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에서 '기업협업 융복합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관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콘텐츠 고도화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기업 애로사항 청취 ▲참여기업 소개 ▲기업별 과제방향 및 추진전략 소개 ▲과제관리 방법 안내 ▲기업 간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기업협업 융복합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은 전남 유무형 문화·관광자원을 소재로한 기존 콘텐츠를 국내 스타트업과 지역 콘텐츠 기업 간 협업을 통해 고도화 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공모와 평가를 통해 총 12개의 과제를 선정했으며, 오는 5월 말까지 콘텐츠 고도화 및 상용화를 완료하게 된다.

/유형동 기자